ASAN
REPORT

한국인의 대북 심리
인식, 정서, 이미지, 그리고 그 근원

박주화, 제임스 김, 차두현, 강충구

2021년 5월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san Report

한국인의 대북 심리
인식, 정서, 이미지, 그리고 그 근원

박주화, 제임스 김, 차두현, 강충구

2021년 5월

아산정책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저자

박 주 화

박주화 박사는 Brown University에서 인지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한반도 화해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국민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 평화에 대한 태도, 남북 화해에 대한 인식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심리학적 접근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 임 스 김

제임스 김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미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Columbia University 국제대학원 겸임 강사이다. Cornell University에서 노사관계 학사와 석사학위를 마치고 Columbia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의 조교수(2008~2012)와 랜드연구소의 Summer 연구원(2003~2004)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민주주의 제도, 무역, 방법론, 공공정책 등이다.

차 두 현

차두현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외교안보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를 지냈으며(2011~2014)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 건이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강 충 구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정책소통지수 개발” 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목차

Ⅰ. 머리말: 한국인의 대북 인식, 그 심리 저변은? 08
1. 연구 배경 08
2. 연구 목적 10
3. 연구 방법 10
가. 조사방법 및 절차 10
나. 조사일정 및 응답자 특성 11

Ⅱ. 한국인의 대북 인식 특성 15
1. 상대적으로 낮은 북한에 대한 관심 15
2. '분노'와 '공포'가 우세한 대북 정서 17
3. 부정적 대북 인식 19
4. '독재국가', '적대국가'가 주를 이룬 대북 이미지 22
5. 북한의 핵 집착으로 인한 안보 불안감 24
6. 북한 위협에 대한 높은 자각 25
7. 북한 위협에 대한 강화된 대응수단 요구 28

Ⅲ. 국민 대북 심리 심층 분석 30
1. 북한에 대한 정서와 인식 30
가. 대북 정서 30
나. 대북 인식 34
2. 북한으로 인한 안보 불안감 36
3.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태도 40
4. 한국 안보정책에 대한 입장 44

Ⅳ. 맺는말: 우리 국민의 대북 심리가 지니는 함축성 49

부록: 대북 인식 조사 문항별 응답 결과표 51

그림

[그림 2-1] 북한 관심도 15
[그림 2-2] 북한에 대한 정서 17
[그림 2-3] 대북 정서: 4대 요인 18
[그림 2-4] 북한에 대한 인식 20
[그림 3-1] 북한에 대한 정서의 평균 30

표

[표 1-1] 조사 참여 응답자 정보 12
[표 1-2]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3
[표 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북한 관심도 16
[표 2-2] 북한 이미지에 따른 대북 정서 21
[표 2-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북 이미지 23
[표 2-4] 대북 이미지별 북한에 대한 인식 24
[표 2-5] 북한 관련 인식 25
[표 2-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북 위협 지각도 27
[표 2-7] 대북 인식별 대북 위협 지각도 28
[표 2-8] 북핵 위협에 대한 정책 대응 29
[표 3-1] 북한에 대한 정서: 요인분석 결과 31
[표 3-2]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분노 정서의 평균 32
[표 3-3]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긍정 정서의 평균 34
[표 3-4] 대북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35
[표 3-5]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대북 인식의 평균 35
[표 3-6]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전반적 안보 불안감의 평균 37
[표 3-7] 정서, 이미지, 안보 불안감의 상관성 38
[표 3-8] 전반적 안보 불안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39
[표 3-9]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북한 핵 능력에 대한 태도 평균 40
[표 3-10] 정서, 인식, 북한 핵 능력에 대한 태도의 상관성 42
[표 3-11]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태도 관련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43
[표 3-12]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남북 군사력 비교의 평균 45
[표 3-13] 대북 정서, 대북 이미지, 안보정책에 대한 태도의 상관성 46
[표 3-14] 대북 정서, 대북 인식, 안보정책에 대한 입장의 관계 47

I. 머리말: 한국인의 대북 인식, 그 심리 저변은?

1. 연구 배경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인식은 '두려움'이었다. 냉전과 함께 시작된 미소 군비경쟁은 핵 시대의 개막을 알렸고, 핵무기라는 궁극의 무기가 가진 엄청난 파괴력은 양국 모두에게 공멸(攻滅)에 대한 우려를 가져다주었다. 바로 이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미소의 핵 군비경쟁하에서 전쟁을 막아준 주요한 심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포와 함께 존재한 심리에 있어 미국과 소련은 차이를 보였다. 냉전 당시 소련인들이 미국에 느꼈던 감정은 '공포'와 '존경'(respect)이 뒤섞인 것이었고, 미국인들의 대(對)소련 인식은 '공포'와 '경멸'(contempt)을 담고 있었다.[1] 구(舊)소련 해체와 이어진 시장화 조류,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을 특징지었던 동유럽권의 자유화·민주화 저변에는 이러한 존경이 자리잡고 있었을 수 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태도(attitude)나 행태(behavior), 그리고 정책에는 상대편 국가에 대한 인식(perception)이나 정서(emotion)가 자리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어떤 국가가 특정 국가를 적대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에는 두려움(fear), 증오(anger), 짜증(irritation) 등 다양한 심리가 존재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정서나 심리가 상대 국가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두려움을 배경으로 한 적대감이라면 이는 상대방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증오가 자리잡고 있다면 군사적 응징이나 전쟁으로 발전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단선적 인식 차원을 넘어 그 심리적 저변을 탐구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 저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불안을 해소하거나, 국민 다수가 실제로 공감하거나, 그로 인해 광범위한 정책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북 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북한에 느끼는 심리의 저변을 탐색하기 위한 조사 연구는 그 동안 빈

1. Daniel Frei, *Perceived Images: U.S. and Soviet Assumptions and Perceptions in Disarmament* (New York: Rowman & Allanheld Publishers, 1986), pp. 243-246. 비슷한 지적은 Shwarz의 저서에서도 등장한다. Morton Schwartz, *Soviet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참조.

약했던 것이 현실이다.[2]

그 동안 우리 국민의 대북 인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조사된 것들이 "당신은 북한을 어떤 상대로 인식하십니까?"에 대한 것이었고, 이는 주로 적대, 협력, 경쟁, 지원 중에서 한 항목을 고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추가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질문도 존재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심리 상태를 위한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3]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심리가 개인의 정치적 선호나 특정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보수나 진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층의 경우 이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에 긍정적 이미지나 신뢰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4] 또 2018년의 남북 대화 분위기와 3차례의 정상회담, 그리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같은 정치·외교적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미지와 정서가 변동되었을 경우 이것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장 역시 약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 국민의 단순한 대북 이미지나 신뢰도를 넘어선, 다양한 심리적 측면을 탐색하려는 시도가 제한적으로 있어왔다.[5] 그러나 이 연구 역시 통일이나 남북 통합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의식을 분석했을 뿐, 현재의 남북한 관계나 북한의 정책 등으로 인해 국민이 북한에 어떤 정서나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심리가 안보분야에 있어 불안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이 실제로 바라는 안보정책 방향

2. 이러한 점은 다른 국가의 타(他)국민에 대한 이미지 조사 역시 비슷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갤럽' 등이 주기적으로 실시해 온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역시 '호감도'(favorability) 정도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Justin McCarthy, "South Korea's Image at New High in U.S.," Gallup U.S. Report (Feb 20, 2018) 참조. 또한,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 국가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경우도 많았다. Pew Research Center, "Public Support for Increased Trade, Except With South Korea and China" Pew Research Paper (November 9, 2010) 참조.
3. 물론, 이 조사의 주목적이 심리 저변에 대한 판단보다는 주로 통일정책이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의식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에 심리 저변의 분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즉, 조사의 초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신 외,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대북정책』, KINU 연구총서 19-19 (서울: 통일연구원, 2019); 김학재 외, 『2019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9) 등을 참조할 것.
4. 실제로 국민의 대북 이미지나 인식은 진보 혹은 보수 성향에 따라 적지 않은 편차를 보였으며,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의 성격으로 인위적으로 긍정적 대북 이미지를 응답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김학재 외, 『2019 통일의식조사』, pp. 86-91의 내용을 참조할 것.
5. 박주화 외,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KINU연구총서 16-07 (서울: 통일연구원, 2016); 양문수·이우영·이하연,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pp. 105-133.

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은 매우 빈약하게 다루어져 왔다.

2. 연구 목적

아산정책연구원은 이를 감안해서 일반 국민의 대북 심리와 관련하여 피상적 인식이나 이미지 차원을 넘어 심리 저변을 파악하는 한편, 단순히 북한이나 대북 정책에 대한 선호를 넘어선 복합적 심리(경멸, 동정, 측은지심 등)를 알아보는 조사연구를 기획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① 우리 국민이 북한에 느끼는 다양한 심리 식별
② 개별 심리 요인 간 상호 연관성 분석
③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대/지역 등)과 대북 심리 요인의 관계 진단
④ 국민의 대북 정서와 외교안보정책상 주요 쟁점 간 연관성 파악
⑤ 정책 시사점 도출

의식조사와 관련하여 적실성 있는 설계와 기획을 위해 선행연구를 담당해 본 전문가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위원단을 구성했고, 설문지의 구성과 결과 분석의 전 과정에 걸쳐 밀접한 협력체제를 이루었다.[6]

3. 연구 방법

가. 조사방법 및 절차

아산정책연구원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온라인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사전모집 패널(pre-recruited panels)을 대상으로 웹을 통해 실사가 이뤄졌다. 사전모집 패널조사는 조사비용이 저렴하고 자료 수집기간이 짧아서 국내외 조사업체가 온라인 조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사방식이다. 이외에도 표적집단(target group) 조사에는 표본의 특성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확률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6. 자문단에는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도 이들의 조언과 자문을 구한 바 있다.

또 조사 참여자의 응답이 컴퓨터를 통해 기록되므로 대면·전화면접 조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오류 등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를 줄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므로 인터넷 빈번 이용자층을 과대 표집 하거나, 이들이 중복해서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모집 패널은 자발적으로 조사업체 풀에 등록한 응답자(opt-in panels)라는 점에서 일반 인터넷 이용자보다는 조사에 대한 관심과 관여도가 높고, 설문 응답에 대한 숙련도가 높다.

이번 조사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항의 조사를 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실사를 담당한 『리서치앤리서치』의 사전모집 패널DB에서 응답자를 추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응답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사전에 조사업체 풀에 등록한 패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웹 조사 링크를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SMS) 등으로 보내 조사에 응하게 했다. 표본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기초해 구성한 성, 연령, 지역 기준의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적용해 응답자 표본을 구성했다.

온라인 조사는 패널 응답자가 웹 설문에 자가보고(self-report)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웹 설문은 문항 및 하위 항목의 순서, 순위 및 척도 응답지 구성 등이 응답자에게 주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문항과 응답지를 무작위(randomize) 또는 순서(순/역방향)가 달라지도록 설계했다. 온라인 조사에서 문항을 복잡하게 구성해 일어날 수 있는 응답자 편향(response bias)을 줄이기 위해 문항을 주제별로 개별 구획으로 나누고, 단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구현했다. 문항은 체계적으로 선호하는 특정 의견을 답하게 하기 위해 잘 모름, 무응답 응답지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조사의 웹 페이지는 선행하는 문항에 답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게 구성했다. 이는 유효 표본을 더 확보하기 위해 국내 조사업체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나. 조사일정 및 응답자 특성

온라인 조사의 자료 수집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총 5일 동안 이뤄졌다. 총 5일의 실사 기간에서 첫 3일간 최종 표본의 97.9%가 조사를 완료했다(표 1-1 참고). 표본 추출을 거의 완료한 이후 실사 4~5일차에는 성, 연령, 지역 기준의 할당 표집틀(sampling frame)에서 할당 목표를 채우지 못한 셀에 해당하는 패널에 추가로 접촉해 조사에 응하도록 요청했다. 최초 22,208명에게 웹 조사 링크를 보냈고, 실사 경과를 감안해 세 차례 각

각 500여 명에게 웹 조사 링크를 보내 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조사를 완료한 응답자에게는 통상적 수준의 보상, 즉 1,2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수신한 웹 조사 링크를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접속했다. 무작위로 선정된 사전모집 패널 가운데 대다수인 78.4%는 PC를 이용해 조사에 참여했다. 그 외 21.6%는 모바일로 조사에 응했다. 응답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대,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서울, 30~40대는 모바일 참여가 많았던 반면에 충청, 호남, TK 등의 지방과 60세 이상은 PC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성별에 따른 응답 유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7]

[표 1-1] 조사 참여 응답자 정보(단위: %, (명))

		가중 전(unweighted)	가중 후(weighted)
조사일	1일차	27.2(315)	28.2(282)
	2일차	39.0(452)	39.5(395)
	3일차	31.5(365)	30.2(302)
	4일차	1.3(15)	1.2(12)
	5일차	0.9(11)	0.9(9)
응답유형	PC	78.8(912)	78.4(784)
	모바일	21.2(246)	21.6(216)
합계		100(1,158)	100(1,000)

『리서치앤리서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응답자 패널을 모집해 관리하고 있다. 조사 사이트에 가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기존 회원과의 중복

7. 연령대 및 지역별 응답 유형 분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대별로는 PC 19~29세 16.7%, 30대 13.5%, 40대 18.1%, 50대 19.4%, 60세 이상 32.3%, 모바일 19~29세 18.1%, 30대 24.1%, 40대 22.7%, 50대 21.3%, 60세 이상 13.9%였다(x^2=34.502, df=4, p<.001). 지역별로는 PC 서울 16.8%, 인천/경기 30.5%, 대전/충청 11.5%, 광주/전라 10.6%, 대구/경북 10.2%, 부산/울산/경남 15.6%, 강원/제주 4.8%, 모바일 서울 26.9%, 인천/경기 33.3%, 대전/충청 7.4%, 광주/전라 7.4%, 대구/경북 7.9%, 부산/울산/경남 14.4%, 강원/제주 2.8%로 나타났다(x^2=16.520, df=6, p<.05).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규 패널을 모집했다. 사전 등록 패널의 정보가 수시로 바뀌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연속 3회 적발될 경우 이들을 강제 탈퇴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응답자 풀의 품질을 관리했다. 사전모집 패널은 2020년 11월 기준 총 131,902명 규모였다. 성별로는 남성(67.1%), 연령대는 19~29세(32.1%), 30대(32.8%) 등 젊은 층, 지역은 서울(28.9%), 인천/경기(28.2%) 등 수도권 거주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앞서 밝혔듯이 이번 조사는 사전 모집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최초 총 22,208명을 조사 대상으로 추출해 이들에게 조사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했다. 최초 추출된 조사대상은 남녀 비율이 47.8%, 52.2%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가 50대 이상보다 더 많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가

[표 1-2]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단위: %, (명))

		온라인 표본 (가중 전)	추출된 조사대상	인구통계 할당 표본	사전모집 패널DB
전체		100(1,158)	100(22,208)	100(1,000)	100(131,902)
성별	남성	49.8(577)	47.8(10,608)	49.5(495)	67.1(88,521)
	여성	50.2(581)	52.2(11,600)	50.5(505)	32.9(43,381)
연령대	19~29세	16.7(193)	22.2(4,932)	17.0(170)	32.1(42,307)
	30대	16.5(191)	33.2(7,375)	15.8(158)	32.8(43,324)
	40대	19.4(225)	26.4(5,856)	19.1(191)	19.7(25,926)
	50대	19.9(231)	12.6(2,795)	19.8(198)	9.6(12,723)
	60세 이상	27.5(318)	5.6(1,250)	28.3(283)	5.8(7,622)
지역별	서울	16.8(195)	31.7(7,051)	19.0(190)	28.9(38,082)
	인천/경기	28.4(329)	29.9(6,635)	31.1(311)	28.2(37,168)
	대전/충청	11.8(137)	8.0(1,769)	10.6(106)	9.1(12,008)
	광주/전라	11.1(128)	6.7(1,482)	9.9(99)	7.9(10,481)
	대구/경북	10.2(118)	8.1(1,791)	9.7(97)	8.7(11,427)
	부산/울산/경남	15.7(182)	12.8(2,832)	15.3(153)	14.0(18,528)
	강원/제주	6.0(69)	2.9(648)	4.4(44)	3.2(4,208)

61.6%(서울 31.7%, 인천·경기 29.9%)였다. 성별을 제외하면 사전모집 패널 데이터베이스의 연령대 및 거주지역별 분포 비율과 유사했다.

최종적으로 이번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158명(가중 전)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49.8%, 여성 50.2%였고, 연령대별 분포는 행정안전부의 9월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유사했다. 19~29세와 60세 이상이 과소, 30~50대가 소폭으로 과대표집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과소, 지방이 과대표집됐으나 그 차이가 2%p 내외로 크지 않았다. 최초 조사 링크 발송 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에 비해 응답을 완료한 표본은 인구통계 기준 표집틀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후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인구통계 기준의 가중치(weight)를 적용했다(사례 수 1,000명).

응답 소요시간은 최소 3분에서 최대 105분으로 다소 편차를 보였지만, 90%가 넘는 응답자가 10분 내외로 설문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자가 설문 응답을 완료하는 데 쓴 시간은 평균 7.1분(SD=9.13)이었다. 최종 표본의 90.6%가 11분 이내로 조사에 대한 응답을 마쳤다. 조사 참여 패널의 응답 소요시간은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또 조사에 접속한 경로에 따른 응답 소요시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응답자의 배경과 조사 환경에 따라 응답 소요시간이 다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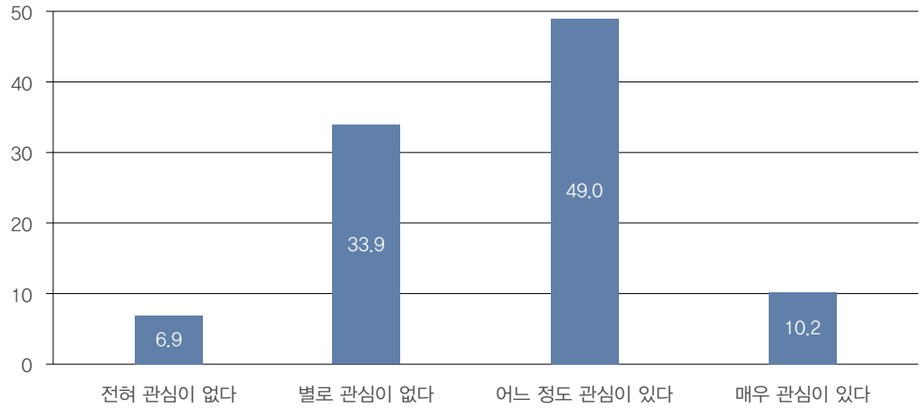
Ⅱ. 한국인의 대북 인식 특성

1. 상대적으로 낮은 북한에 대한 관심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대북 인식이나 정서, 대북 정책 등에 대한 태도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한국인이 북한에 대해 지니는 지식과 경험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태도 또한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는 평소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부록 1: 설문조사 문항' 참조)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40.8%가 별로 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 문항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으로 관심이 많다고 답하게 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8] 한국의 대외정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받게 될 대상의 하나가 바로 한반도 이북에 존재하는 북한이기 때문이다. 이는 2019년 이후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있고, 2020년에 들어서는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 단절 선언(6월)이 나왔으며, 북미대화가 중단된

[그림 2-1] 북한 관심도(단위: %)



8.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은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응답자가 전화면접자(interviewer)에게 긍정적으로 보이거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응답지를 선택하는 경향을 말한다.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진 탓에 관심도가 낮게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소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한 경우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한 비율이 49%로 다수를 차지했다. 매우 관심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10.2%에 불과했다. 물론,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표류 공무원 사살 등 북한 관련 사건이 코로나19 이후 부정적 측면으로 편향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북 관심도가 현저하게 낮은 편은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응답자의 관심이 약 6 대 4로 엇갈렸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적 행동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유지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67.1%)이 여성(51.5%)보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 군 복무 경험, 안보 이슈의 성격상 남성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일수록 젊은 층에 비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관심 있다고 한 응답은 50대(64.6%), 60세 이상(64%), 40대(63.9%)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20대와 30대는 북한

[표 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북한 관심도(단위: %)

		관심 있다	관심 없다	검정값
전체		59.2	40.8	
성별	**남성**	**67.1**	32.9	x^2=25.140, df=1, p<.001
	여성	51.5	48.5	
연령대	**19~29세**	50.6	49.4	x^2=20.100, df=4, p<.001
	30대	48.1	51.9	
	40대	**63.9**	36.1	
	50대	**64.6**	35.4	
	60세 이상	**64.0**	36.0	
이념	**진보**	**66.8**	33.2	x^2=8.428, df=2, p<.05
	중도	55.7	44.3	
	보수	58.0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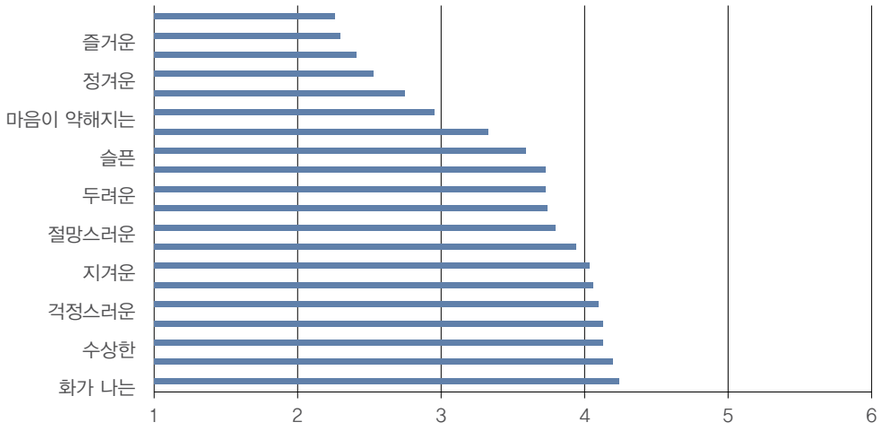
에 관심이 50% 내외였다. 연령대별 차이는 주로 20~30대와 40대 이상에서 뚜렷했다. 이는 우리나라 청·장년층에서는 북한에 대한 관심 자체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55.7%), 보수(58%)에 비해 진보층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진보의 66.8%는 북한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전체 평균인 59.2%보다 더 높았다. 또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는 진보와 중도 사이에서 가장 컸다. 중도, 보수에서 북한에 관심이 있다고 한 비율은 50% 중·후반대로 진보에 미치지 못했다. 진보 성향의 국민이 다른 이념성향의 국민에 비해 북한 관심도가 높았던 셈이다.

2. '분노'와 '공포'가 우세한 대북 정서

본 연구는 평소 한국인이 북한에 어떤 정서(emotion)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 총 20개의 정서를 선별했다. 응답자에게 북한을 생각할 때 "귀하께서 아래에 제시한 정서를 어느 정도 경험하십니까?"란 질문을 6점 척도(1점: 전혀 경험하지 않음, 6점: 전적으로 경험함)로 답하게 했다. 제시된 개별 정서는 '두려운', '무서운', '긴장하는', '분노하는', '화가 나는', '증오스러운', '불안한', '수상한', '걱정스러운', '절망스러운', '성가신', '지겨운', '즐거운', '정겨운', '행복한', '마음이 약해지는', '공감하는', '연민', '슬픈', '따뜻함' 등이었다. 한국인이 갖는 북한에 대한 정서의 단면을 다양하게 살펴보기 위해 정서를 세분화한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느끼는 대북 정서가 일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림 2-2] 북한에 대한 정서(단위: 1~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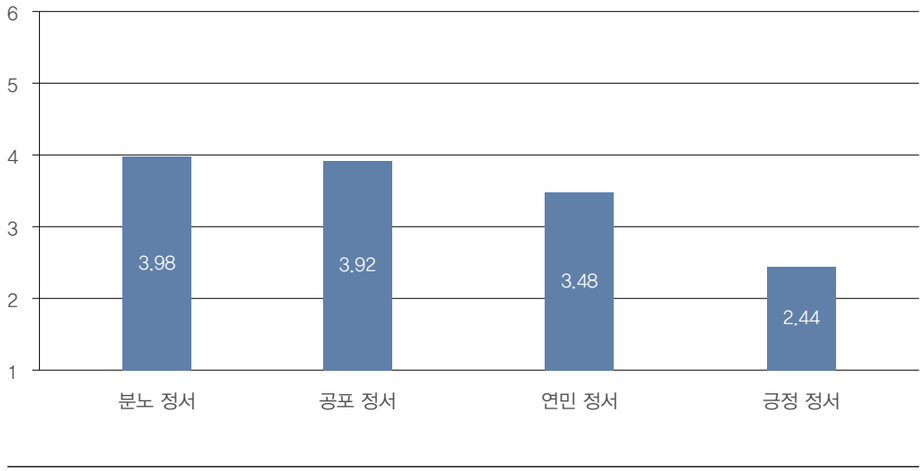


그 결과, 북한을 생각할 때 응답자는 주로 '화가 나는'(4.22점), '불안한'(4.18점), '수상한'(4.12점), '분노하는'(4.11점), '걱정스러운'(4.08점) 등의 부정 정서를 느꼈다. '지겨운'(4.01점), '성가신'(3.93점), '절망스러운'(3.78점), '무서운'(3.73점), '두려운'(3.71점), '증오스러운'(3.70점) 등은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대로 '행복한'(2.25점), '즐거운'(2.28점), '따뜻함'(2.40점), '정겨운'(2.52점), '공감하는'(2.74점) 등의 긍정 정서를 느낀다는 평가는 낮았다. 독특한 대목은 '슬픈'(3.58점), '연민'(3.32점), '마음이 약해지는'(2.95점) 등의 정서가 그 사이에 분포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정서는 크게 4가지 요인으로 축약됐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따르면 '분노하는', '화가 나는', '증오스러운', '지겨운', '성가신', '수상한', '절망스러운' 등은 분노 정서(7), '따뜻함', '행복한', '즐거운', '정겨운', '공감하는' 등은 긍정 정서(5), '마음이 약해지는', '슬픈', '연민', '걱정스러운' 등은 연민 정서(4), '두려운', '무서운', '불안한', '긴장하는' 등은 두려움 정서(4)로 나뉘었다.[9] 그만큼 응답자의 북한에 대한 정서가 복잡다단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국인에게 '북한'이라는 존재가 같은 민족이면서도, 큰 안보 위협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였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에 대한 응답자의 정서 구조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다음에서는 축

[그림 2-3] 대북 정서: 4대 요인(단위: 1~6점)



9. 자세한 요인분석 결과는 제3장의 [표 3-1]을 참조하기 바람.

약된 정서 요인 즉 분노, 두려움, 긍정, 연민 정서를 개별적으로 분석했다. 응답자의 북한에 대한 정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편이었다. 분노, 공포로 나뉜 부정적 정서는 각각 3.98점(SD=1.03), 3.92점(SD=1.05)으로 1~6점의 중간 값(median)인 3.5점을 넘어 4점에 가까웠다. 이와 대조적으로 연민과 긍정 정서는 각각 3.48점(SD=0.91), 2.44점(SD=1.01)으로 부정적 정서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긍정 정서는 2.44점에 그쳤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응답자는 대체로 북한에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편이었고, 연민 정서가 그 다음이었다. 앞서 20가지 개별 정서로 나눠 살펴본 결과와 마찬가지로 긍정 정서에 대한 경험 수준은 낮았다.

3. 부정적 대북 인식

'인식'(perception)은 정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서가 감정적이고 누적된 경험의 측면을 대변한다면 인식은 비교적 단기적 사건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가 인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부정적일 것으로 관측되었다. 2018년을 계기로 높아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북한의 행태로 인해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에 들어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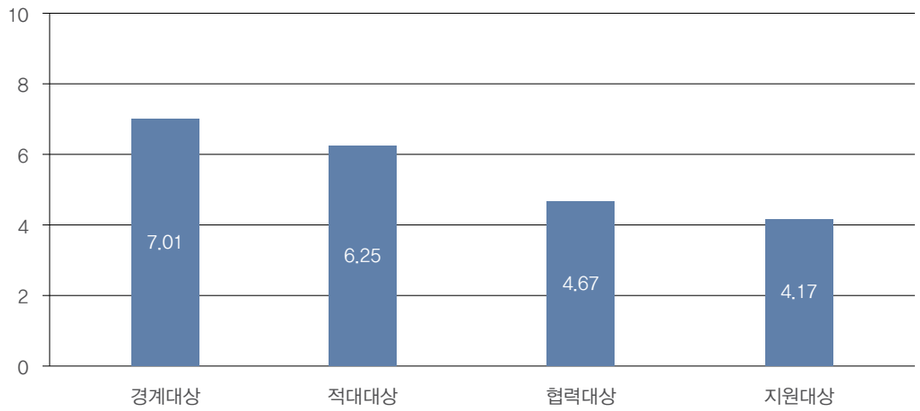
실제 그 동안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크게 요동쳤다. 최근에는 주변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밖에 없었다. 2020년은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있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면서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변할 가능성이 컸다. 즉, 협력이나 지원의 대상보다는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인식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2018년만해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까지 겹치며 남북관계는 최악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선생님께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을 던지고 지원, 협력, 경계, 적대 중 어떤 면으로 보는지를 11점 척도(0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점: 매우 동의한다)에 따라 답하게 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현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 등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납득할 만한 결과였다. 부정 인식은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이 평균 7.01점(SD= 2.41)으로 '적대대상'(6.25점, SD= 2.61)에 비해 더 높았다. 부정적 인식이 짙은 가운데 북한을

협력, 지원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는 각각 4.67점(SD= 2.66), 4.17점(SD= 2.66)으로 중립인 5점 이하였다.

이 문항에서 중립(중간 값= 5점)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의미했다. 경계·적대대상이 6~7점 초반, 협력·지원대상이 4점대로 나타난 결과는 응답자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까지도 정부가 금강산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남북 간 의견 교환이 중단됐고 북한이 국경까지 폐쇄한 상황에서 관광 재개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로 인해 응답자의 대북 인식은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4] 북한에 대한 인식(단위: 0~10점)



북한에 대한 인식은 대북 정서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대북 인식(긍정: 협력·지원대상, 부정: 경계·적대대상)과 앞에 제시한 축약된 4대 정서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correlation)가 검증됐다.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분노(r=-.390), 공포(r=-.190) 정서와는 부(-)적인 관계에 있었던 반면에 긍정(r=.479), 연민(r=.341) 정서와는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p<.01). 반대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분노(r=.634), 공포(r=.490) 정서와는 정(+)적인 관계에 있었고, 긍정(r=-.323) 정서와는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p<.01). 예외로 부정적 인식과 연민 정서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민 정서를 제외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은 대북 정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

우리 국민의 대북 인식별 대북 정서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북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평균 값 기준으로 구분했다. 즉,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 집단(high vs. low)으로 구분해 독립표본 t-검정을 했다. 여기서도 위의 상관관계 분석과 동일한 경향성이 발견됐다. 즉,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분노(4.51점, Low 3.48점)와 공포(4.32점, Low 3.54점) 정서는 높았고, 긍정(2.11점, Low 2.75점) 정서는 비교적 낮았다. 부정적 인식의 강도와 연민 정서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대로,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분노(3.68점, Low 4.39점)와 공포(3.78점, Low 4.11점) 정서는 낮았던 반면, 긍정(2.83점, Low 1.91점)과 연민(3.69점, Low 3.19점) 정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2] 북한 이미지에 따른 대북 정서(단위: 1~6점)

이미지	대북 정서	구분	평균(표준편차)	검정값
긍정 이미지	분노 정서	낮음	**4.39**(1.08)	t=10.996, df=790.406, p<.001
		높음	3.68(0.88)	
	공포 정서	낮음	**4.11**(1.92)	t=4.900, df=755.107, p<.001
		높음	3.78(0.91)	
	긍정 정서	낮음	1.91(1.19)	t=-14.366, df=998, p<.001
		높음	**2.83**(0.91)	
	연민 정서	낮음	3.19(0.95)	t=-8.860, df=814.568, p<.001
		높음	**3.69**(0.81)	
부정 이미지	분노 정서	낮음	3.48(0.82)	t=-18.204, df=952.560, p<.001
		높음	**4.51**(0.96)	
	공포 정서	낮음	3.54(0.90)	t=-12.499, df=949.398, p<.001
		높음	**4.32**(1.05)	
	긍정 정서	낮음	**2.75**(0.95)	t=9.523, df=931.642, p<.001
		높음	2.11(1.16)	
	연민 정서	낮음	3.52(0.85)	n.s.
		높음	3.44(0.96)	

응답자가 북한을 협력·지원대상 또는 경계·적대대상 등으로 보는 정도는 대북 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됐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북 정서는 응답자가 북한에 대해 갖는 인상 평가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즉, 응답자 개인이 북한이라고 했을 때 갖는 심리적 차원의 평가 결과로 볼 수 있다. 대북 인식과 대북 정서 가운데 어느 변수가 선행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요인 사이 정적(+) 상관관계가 뚜렷했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4. '독재국가', '적대국가'가 주를 이룬 대북 이미지

본 연구에서 '이미지'(image)란 '북한'을 어떤 상대로 보는가라는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인식'이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견해라면 '이미지'는 북한의 속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란 질문에 대체로 응답자의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독재국가'(43.9%)나 '적대국가'(21.8%)를 떠올린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포·민족'은 12.7%, '동반가능국가'는 8.1%로 그에 비해 1/3 수준에 그쳤다. '야만적', '열등한' 국가라는 응답은 각각 7.3%, 6.1%였다. 야만적, 열등한 국가라는 응답은 북한을 비하하는 묘사하였으므로 부정적 이미지는 실질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즉, 북한을 호의적으로 보는 시각에 비해 그와 정반대의 시각이 두드러졌다.

추가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북 이미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동포·민족이나 동반가능국가는 긍정 이미지, 독재나 적대국가는 부정 이미지로 나누었다. 열등한, 야만적 국가(n=134) 응답은 해석의 편의를 위해 분석에서 제외했다. 전반적으로 북한을 부정적으로 본 비율이 76%로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대북 이미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북 인식이 편향적으로 분포했으므로 긍정 인식에서 특이점이 드러나는 응답층을 찾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50대는 30% 내외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40대 31.1%, 50대 29.2%).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 이념성향별로는 진보(36.9%)가 중도, 보수에 비해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진보층이 북한을 동포·민족이나 동반가능국가로 보는 경향이 짙었다. 연령대로는 40~50대, 이념성향으로는 진보층이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었다.

[표 2-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북 이미지(단위: %)

		대북 이미지		
		긍정(n=208)	부정(n=658)	검정값
전체		24.0	76.0	
연령대	19~29세	18.8	**81.2**	x^2=12.377, df=4, p<.05
	30대	23.5	76.5	
	40대	**31.1**	68.9	
	50대	**29.2**	70.8	
	60세 이상	19.1	80.9	
이념	진보	**36.9**	63.1	x^2=38.379, df=2, p<.001
	중도	24.4	75.6	
	보수	12.4	**87.6**	

응답자가 평소에 갖고 있는 대북 이미지는 대북 인식과도 관계가 있었다. 대북 이미지 별로 응답자의 대북 인식을 비교한 결과, 대북 인식은 북한에 대한 이미지에 따라 엇갈렸다. 여기서도 해석의 편의를 위해 대북 이미지는 긍정, 부정으로만 구분했다. [표 2-4]에 제시한 결과를 보면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북 이미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대북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시각(6.27점, 부정 3.79점)이 뚜렷했다. 반면에 대북 이미지가 부정적일수록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과 연관 짓는 경향(7.21점, 긍정 5.01점)이 짙었다.

물론 앞서 밝혔듯이 전반적으로 북한을 경계, 또는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은 5~7점 사이에 있었다. 중립을 의미하는 5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에 분포했다. 이에 반해 긍정적 인식은 그보다 낮은 3~6점대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북한에 대한 이미지 차이 값이 부정(2.20점)에 비해 긍정적 대북 인식에서 2.48점으로 더 컸다는 점이다. 긍정적 대북 인식의 정도가 북한에 대한 이미지 차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크게 엇갈린 셈이다. 부정 이미지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북한에 대한 중립 혹은 부정적 인식이 결정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긍정 이미지의 경우 그에 따라 부정과 긍정의 대북 인식이 결정되고 있었다.

[표 2-4] 대북 이미지별 북한에 대한 인식[10] (단위: 0~10점)

대북 인식	대북 이미지	평균(표준편차)	검정값
긍정 인식 (지원·협력대상)	**부정**(n=658)	3.79(2.42)	*t*=-13.742, *df*=864, *p*<.001
	긍정(n=208)	**6.27**(1.73)	
부정 인식 (적대·경계대상)	**부정**(n=658)	**7.21**(2.19)	*t*=12.867, *df*=864, *p*<.001
	긍정(n=208)	5.01(2.03)	

5. 북한의 핵 집착으로 인한 안보 불안감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은 생각보다 높았다. [표 2-5]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반을 질문한 결과이다. "북한 핵위협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으로 인해 평소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수(68%)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한 반면, 불안하지 않다고 한 비율은 32%에 그쳤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성사된 미북회담 등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남북관계도 코로나19로 경색 국면에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형성되고,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전망은 비관적이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대다수인 82%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가능성이 높다 18%).

특이한 것은 전쟁의 위험에 대한 불안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 핵을 포함한 안보 위협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본 비율은 46.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반대로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응답은 53.3%였다. 이는 과거에 비해 북한의 위협이 높아졌고,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북핵 위협이 일상화된 상태에서 나온 반응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 핵문제가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부상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10. 열등한, 야만적 국가를 묶어서 변량분석(*F*-검정)을 한 결과에서도 북한 이미지에 따라 응답자의 대북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8%나 됐다(영향을 미친다 44.2%). 이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안보 불감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동시에, 북한 핵 위협이 일상화된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표 2-5] 북한 관련 인식(단위: %)

설문항목	응답	비율(%)
안보 불안감	**불안하다**	**68.0**
	불안하지 않다	32.0
남북전쟁 가능성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53.3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46.7
북한의 핵무기 포기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	**82.0**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18.0
북핵 위협이 삶에 미치는 영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5.8**
	영향을 미친다	44.2

6. 북한 위협에 대한 높은 자각

본 연구에서는 대북 위협 지각 수준도 조사되었다. "북한의 군사력(핵 능력)이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을 제시하고 응답자에게 5점 척도(1점: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5점: 매우 위협적이다)로 위협 수준을 평가하게 했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는 북한의 위협을 3.59점(SD=1.06)으로 평가했다. 3점이 중간 값(median)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을 위협적으로 보는 편이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응답자의 북한 위협 지각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비율로 보더라도 절반이 넘는 응답자(54.7%)가 북한의 위협 수준을 대체로 또는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봤다.[11]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3.7% 밖에 안된다.

11. 응답 비율로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4.1%,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9.6%, '둘 다 아니다' 31.7%, '대체로 위협적이다' 32.5%, '매우 위협적이다' 32.5%였다.

대북 위협 지각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3.66점, SD=1.09)이 여성(3.53점, SD=1.02)보다 평소 북한의 위협을 더 크게 인식했다. 안보 이슈라는 특성이 성별 차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군대를 경험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욱 높은 위협 자각을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3.86점, SD=1.10) 고령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북한을 위협으로 보는 수준이 매우 높았다. 다른 연령대의 대북 위협 지각도가 3.5점 전후로 나타난 것에 비해 60세 이상은 3.86점으로 4점에 가까웠다. 이는 고령층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보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후검정에 따르면 연령대별 차이는 20~40대와 60세 이상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북 위협 지각도 측면에서는 40대 이하(20대 3.41점, 30대 3.44점, 40대 3.51점)와 60세 이상의 차이만 뚜렷했다. 북한의 도발을 경험한 수준이 이 위협 지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쟁 등 북한의 도발을 다수 경험한 고령층이 40대 이하보다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이 더 높았다.

이념별로는 모든 이념성향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북 위협 지각 수준이 높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수의 대북 위협 지각도가 3.85점(SD=1.01)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중도 3.59점(SD=1.05), 진보 3.28점(SD=1.05)의 순이었다. 평소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는 보수에서 위협 지각도가 크게 높았다.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북한을 호의적으로 보는 진보에서 위협 인식이 가장 낮았다. 이는 그간 대북 이슈가 한국인의 이념성향을 크게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일맥상통했다.[12]

평소 '북한'을 지원·협력대상이나 적대·경계대상으로 보는 정도는 대북 위협 지각도와 연관되어 있었다. 응답자가 북한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 수준(11점 척도)과 대북 위협 지각도(5점 척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북한을 지원·협력대상으로 볼수록 북한의 위협을 낮게 평가했다. 두 변수는 부적(-) 상관관계(r=-.256)에 있었다. 이와 반대로 북한을 적대·경계대상으로 볼수록 북한의 위협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r=.411)이 나타났다(p<.01).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북 위협 지각도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12. 이는 응답자의 안보 불안감과도 연관되어 보인다. 북한의 핵 위협을 포함해 안보에 대해 60대 이상(76.7%), 자신을 중도(70%)나 보수(79.3%)로 평가한 응답자가 50대 이하(50대 59.1%, 40대 63.9%, 30대 68.4%, 20대 68.8%), 진보 응답자(51%)에 비해 더 높은 불안감을 표출했다(p<.001).

[표 2-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북 위협 지각도[13](단위: 1~5점)

		평균(표준편차)	검정값
전체		3.59(1.06)	
성별	남성	**3.66**(1.09)	t=1.885, df=998, p<.10
	여성	3.53(1.02)	
연령대	19~29세	3.41(0.98)[a]	F=30.484, df=4, p<.001
	30대	3.44(1.07)[b]	
	40대	3.51(0.95)[c]	
	50대	3.57(1.09)	
	60세 이상	**3.86**(1.10)[a,b,c]	
이념	진보	3.28(1.05)	F=43.416, df=2, p<.001
	중도	3.59(1.05)	
	보수	**3.85**(1.01)	

이 경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북 인식을 두 집단으로 나눠 대북 위협 지각도를 분석했다. 먼저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을수록 대북 위협 지각도는 3.85점(SD=1.05)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은 집단(3.40점, SD=1.02)에 비해 더 높았다. 상대적으로 북한을 지원·협력대상, 즉 호의적으로 보는 응답자의 대북 위협 지각도가 낮았다. 부정적 인식 분석에서는 반대 경향이 드러났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대북 위협 지각도가 3.98점(SD=1.01)으로 부정적 인식이 낮은 집단(3.23점, SD=0.98)에 비해 더 높았다. 북한을 적대·경계대상, 즉 적대적으로 보는 응답자의 대북 위협 지각도가 더 높았던 것이다.

13. F-검정 후 실시한 사후검증(Tukey) 결과는 알파벳 첨자로 표시했다. 같은 알파벳 첨자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성별은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로 남성, 여성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2-7] 대북 인식별 대북 위협 지각도(단위: 1~5점)

대북 인식	구분	평균(표준편차)	검정값
긍정적 인식 (지원·협력대상)	**낮음**(n=423)	**3.85**(1.05)	*t*=6.812, *df*=998, *p*<.001
	높음(n=577)	3.40(1.02)	
부정적 인식 (적대·경계대상)	**낮음**(n=517)	3.23(0.98)	*t*=-11.801, *df*=998, *p*<.001
	높음(n=483)	**3.98**(1.01)	

7. 북한 위협에 대한 강화된 대응수단 요구

위의 결과를 보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은 편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보 위협에 대한 일상적 공포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북핵 위협 인식과 이에 대해 일반 대중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인식은 북핵 문제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과 연관되어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2%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18%). "만약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응답자도 81.1%로 대다수였다(생존 가능성이 있다 18.8%). 이 시각을 종합적으로 보면 응답자 중 다수는 북한과 관련된 위협에 대해 매우 심각하지만, 현재로선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국인은 북핵 위협에 대한 정책 대응에는 강경한 의견을 드러냈다. 먼저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은 48.2%로 절반에 가까웠다. 다음으로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22.2%였다. 핵전력이 한반도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에 현 국방력이 충분하므로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11.1%에 불과했고, 북한의 핵에 재래식 무기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8.5%였다. 대체로 북한의 위협에 강경한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국방비에 대한 의견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이 드러났다. 국방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증액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5.9%, 32.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6%로 가장 많았지만, 국방력 운용에 있어서 공격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33%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대로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응답은 27.4%였다.

[표 2-8] 북핵 위협에 대한 정책 대응(단위: %)

	응답	비율
북핵 대응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 없음**	11.1
	재래식 무기 기반으로 국방력 강화	18.5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	**22.2**
	우리나라 독자적 핵무기 개발	**48.2**
국방비	**삭감해야 한다**	11.3
	현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55.9**
	증액해야 한다	**32.8**
국방력 운용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7.4
	현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39.6**
	공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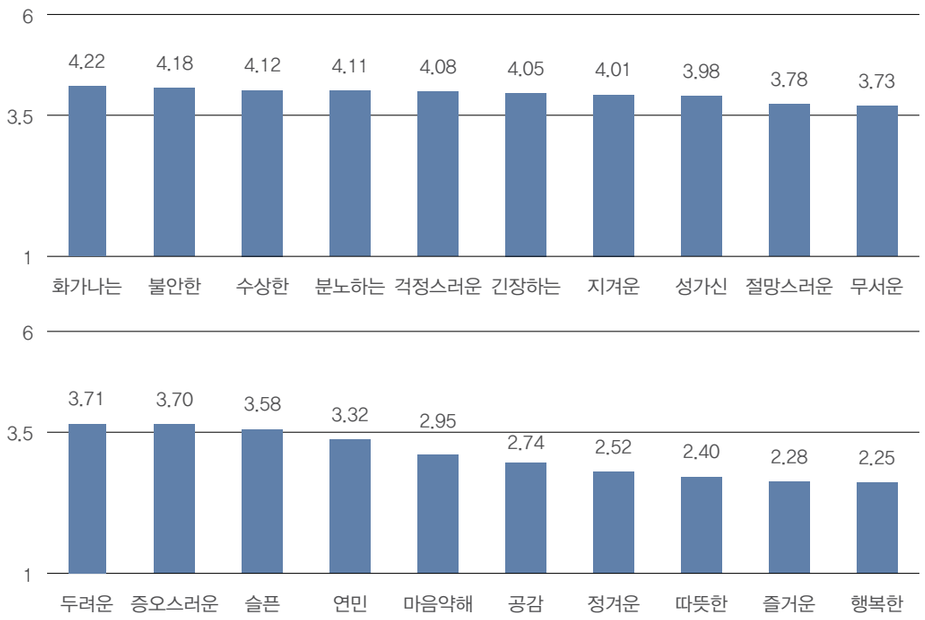
Ⅲ. 국민 대북 심리 심층 분석

1. 북한에 대한 정서와 인식

가. 대북 정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정서(Emotion)는 20개 문항을 이용해 6점 척도(1점: 전혀 경험하지 (느끼지) 않음, 6점: 전적으로 경험함)로 측정하였다. 각 정서별 평균은 [그림 3-1]에 제시하였다.

[그림 3-1] 북한에 대한 정서의 평균



응답자는 북한에 대해 생각할 때 '화가 나는' 정서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한', '수상한', '분노하는', '걱정스러운', '긴장하는', '지겨운' 이 그 뒤를 따랐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정서의 강도가 우세한 가운데 '따뜻한', '정겨운', '즐거운' 등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북한에 대한 정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3	공통성
분노하는	0.84	-0.35	-0.15	-0.63	0.72
화가나는	0.82	-0.34	-0.14	-0.59	0.67
증오스러운	0.79	-0.32	-0.05	-0.57	0.63
지겨운	0.77	-0.29	-0.12	-0.48	0.59
성가신	0.77	-0.33	-0.08	-0.46	0.59
수상한	0.75	-0.44	-0.15	-0.59	0.61
절망스러운	0.67	-0.23	-0.35	-0.64	0.54
따뜻함	-0.35	0.88	-0.32	0.17	0.77
행복한	-0.36	0.87	-0.22	0.17	0.77
즐거운	-0.32	0.86	-0.21	0.16	0.76
정겨운	-0.37	0.82	-0.34	0.16	0.68
공감하는	-0.27	0.72	-0.46	0.07	0.58
마음이 약해지는	-0.19	0.59	-0.59	-0.05	0.53
슬픈	0.32	0.09	-0.68	-0.44	0.53
연민	-0.11	0.39	-0.68	-0.06	0.52
걱정스러운	0.47	-0.06	-0.55	-0.55	0.49
두려운	0.52	-0.12	-0.29	-0.85	0.73
무서운	0.57	-0.14	-0.28	-0.84	0.71
불안한	0.67	-0.30	-0.30	-0.77	0.64
긴장하는	0.60	-0.20	-0.34	-0.74	0.58
아이겐값	7.71	4.14	1.25	0.97	
설명변량	38.55	20.70	6.24	4.84	
누적변량	38.55	59.25	65.50	70.34	
요인명	분노 정서	긍정 정서	연민 정서	두려움 정서	

북한에 대한 정서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주축분해, 사각회전)을 실시한 결과, 4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3-1]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분노하는', '화가 나는', '증오스러운', '지겨운', '성가신', '수상한', '절망스러운'으로 이루어진 요인으로 분노 정서로 명명하였다. 분노 정서를 구성하는 7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0.91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따뜻함', '행복한', '즐거운', '정겨운', '공감하는'으로 구성된 요인으로 긍정 정서로 명명하였다. 긍정 정서를 구성하는 5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0.92였다. 세 번째 요인은 '마음이 약해지는', '슬픈', '연민', '걱정스러운'으로 구성된 요인으로 연민 정서로 명명하였다. 연민 정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0.70였다. 마지막 요인은 '두려운', '무서운', '불안한', '긴장하는'으로 이루어진 요인으로 두려움 정서로 명명하였다. 연민 정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0.88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네 유형으로 구분된 정서의 평균은 [표 3-2]와 [표 3-3]에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분노 정서와 두려움 정서의 평균은 각각 3.98과 3.92로 두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은 북한에 대해 분노와 두려움을 비슷

[표 3-2]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분노 정서의 평균(표준편차)

		분노 정서	두려움 정서	차이의 유의도
전체		3.98(1.03)	3.92(1.05)	*n.s*
성별	남성	4.07(1.08)[a]	3.85(1.06)[a]	$p < .001$
	여성	3.90(0.97)[b]	3.99(1.04)[b]	*n.s*
연령대	20대	3.91(1.03)[a,b]	3.72(1.05)[a]	$p < .01$
	30대	3.94(0.99)[a,b]	3.91(1.00)[a,b]	*n.s*
	40대	3.78(0.91)[a]	3.85(0.94)[a,b]	*n.s*
	50대	3.99(1.03)[a,b]	3.88(1.04)[a,b]	*n.s*
	60세 이상	4.18(1.11)[b]	4.11(1.12)[b]	*n.s*
이념	진보	3.68(0.99)[a]	3.66(1.09)[a]	*n.s*
	중도	3.94(1.00)[b]	3.91(1.03)[b]	*n.s*
	보수	4.36(1.05)[c]	4.16(1.01)[c]	$p < .01$

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로 두 정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남성, 20대, 이념적으로 보수 집단이 북한에 대해 분노 정서가 두려움 정서보다 강했다. 여성, 30대 이상, 진보 및 중도 집단은 두 정서의 강도에 있어 통계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구체적 정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노 정서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북한에 대해 분노 정서가 강했다. 평균(표준편차) 우측의 영어 소문자는 전반적 *F*-검정 후 실시한 사후검정(Tukey test) 결과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로 같은 알파벳이 없는 경우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a, 여성은 b이다.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연령대별 분노 정서의 강도를 살펴보면 40대가 분노 정서가 가장 낮았고 60세 이상의 분노 정서가 가장 강했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반면 20대, 30대, 40대, 50대의 분노 정서는 차이가 없었고, 20대, 30대, 50대, 60대의 분노 정서 역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념이 보수일수록 북한에 대한 분노 정서가 강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분노 정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강한 반면 두려움 정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강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북한에 대해 두려움 정서가 가장 강했으며 20대가 북한에 대한 두려움 정서가 가장 낮았다.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다른 두 정서인 긍정 정서와 연민 정서의 평균은 각각 2.44와 3.48이었다. 분노 정서와 두려움 정서와 비교한다면 연민 정서는 분노 정서 및 두려움 정서보다 강도가 낮았으며 긍정 정서의 강도는 연민 정서의 강도보다 낮았다. 즉 우리 국민은 북한에 긍정적 정서보다 북한에 슬픔과 걱정의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단순히 긍정과 부정의 관점에서 접근한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적어도 정서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긍정과 부정 두 차원보다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긍정 정서와 연민 정서가 구분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두 정서가 대북 정책이나 북한에 대한 태도에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분노=두려움〉연민〉긍정'의 경향이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에서 관찰된 것은 아니다.

남성, 20대, 보수는 분노 정서가 더 강했다. 진보는 분노 정서, 두려움 정서, 그리고 연민 정서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표 3-3]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긍정 정서의 평균(표준편차)

		긍정 정서	연민 정서
전체		2.44(1.10)	3.48(0.91)
성별	남성	2.41(1.08)	3.47(0.91)
	여성	2.46(1.11)	3.49(0.91)
연령대	20대	2.41(1.09)^{a,b}	3.21(0.98)^{a}
	30대	2.40(1.04)^{a,b}	3.39(0.90)^{a,b}
	40대	2.69(1.14)^{b}	3.60(0.86)^{b,c}
	50대	2.51(1.04)^{a,b}	3.65(0.84)^{c}
	60세 이상	2.27(1.12)^{a}	3.50(0.90)^{b,c}
이념	진보	2.65(1.03)^{b}	3.66(0.92)^{c}
	중도	2.43(1.06)^{a,b}	3.46(0.88)^{b}
	보수	2.29(1.24)^{a}	3.40(0.95)^{a}

긍정 정서 및 연민 정서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해 긍정 정서가 가장 강한 연령대는 40대였으며 가장 약한 연령대는 60세 이상이었다. 보수에 비해 진보가 북한에 대한 긍정 정서가 강했으며 중도의 긍정 정서 강도는 진보, 보수와 다르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연민 정서가 가장 강한 집단은 50대, 가장 약한 집단은 20대였다. 특히 20대는 40대 이상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북한에 대한 연민 정서의 강도가 강했다.

나. 대북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을 협력대상, 지원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으로 보는 정도를 통해 측정하였다(0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10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요인분석 결과, 협력대상과 지원대상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이 다른 요인으로 묶였다. 전자를 긍정 인식, 후자를 부정 인식으로 명명하고 각 이미지의 평균을 [표 3-5]에 제시하였다.

[표 3-4] 대북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공통성
지원대상	0.90	-0.45	0.68
협력대상	0.85	-0.40	0.83
경계대상	-0.47	0.88	0.69
적대대상	-0.37	0.84	0.81
아이겐값	2.49	1.02	
설명변량	62.24	25.38	
누적변량	62.24	87.62	
요인명	긍정 인식	부정 인식	

[표 3-5]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대북 인식의 평균(표준편차)

		긍정 인식	부정 인식
전체		4.42(2.50)	6.63(2.34)
성별	남성	4.42(2.60)	6.94(2.36)^{a}
	여성	4.42(2.40)	6.33(2.28)^{b}
연령대	20대	4.20(2.07)^{a}	6.61(2.23)^{a,b}
	30대	4.36(2.44)^{a,b}	6.51(2.32)^{a,b}
	40대	5.00(2.38)^{b}	6.18(2.11)^{a}
	50대	4.93(2.60)^{b}	6.53(2.39)^{a,b}
	60세 이상	3.83(2.63)^{a}	7.10(2.46)^{b}
이념	진보	5.55(2.32)^{c}	5.64(2.45)^{a}
	중도	4.43(2.31)^{b}	6.54(2.22)^{b}
	보수	3.41(2.81)^{a}	7.79(2.16)^{c}

북한에 대한 긍정 인식의 평균은 4.42, 부정적 인식의 평균은 6.63으로 부정 인식이 더 강했다. 북한에 대해 부정 인식이 긍정 인식보다 강한 패턴은 진보를 제외한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에서 관찰되었다. 진보의 경우 북한에 대한 긍정 인식과 부정 인식의 강도가 다르지 않았다. 긍정 인식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 북한에 대해서 긍정 인식이 가장 강한 집단은 40대와 50대, 가장 약한 집단은 20대와 60대였다.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북한에 대한 긍정 인식이 강했다. 부정 인식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강도가 강했다. 연령대별로 본다면 40대가 북한에 대한 부정 인식이 가장 약했으며 60대가 가장 강했다.

2. 북한으로 인한 안보 불안감

전반적 안보 불안감은 두 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 문항은 "선생님께서는 북한 핵 위협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으로 인해 평소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까?"(1점: 전혀 불안하지 않다, 4점: 매우 불안하다), 두 번째 문항은 "선생님께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 전혀 가능성이 없다, 4점: 매우 가능성이 높다)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두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6]에 제시하였다.

안보 불안감의 평균은 2.79였다. 중앙치인 2.5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응답자의 68.0%가 평소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점 역시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안보 불안감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령대별 안보 불안감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안보 불안감이 20대, 30대, 40대, 50대보다 높았다. 20대에서 50대까지의 안보 불안감 수준은 다르지 않았다. 진보에 비해 중도가, 중도에 비해 보수가 안보 불안감이 높았다.

전쟁 발발 가능성의 평균은 2.41이었다. 중앙치인 2.5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하지만 극단적 상황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중앙치에 근접한 응답이 나온 점은 우리 국민들이 전쟁 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6.7%가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였다. 적어도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가장 기본적 동기인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표 3-6]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전반적 안보 불안감의 평균(표준편차)

		안보 불안감	전쟁 가능성
전체		2.79(0.76)	2.41(0.73)
성별	남성	2.79(0.79)	2.42(0.75)
	여성	2.80(0.73)	2.40(0.71)
연령대	20대	2.74(0.74)[a]	2.45(0.76)[b]
	30대	2.78(0.77)[a]	2.44(0.74)[a,b]
	40대	2.68(0.68)[a]	2.37(0.68)[a,b]
	50대	2.66(0.77)[a]	2.25(0.73)[a]
	60세 이상	3.00(0.78)[b]	2.51(0.72)[b]
이념	진보	2.52(0.79)[a]	2.21(0.83)[a]
	중도	2.80(0.73)[b]	2.42(0.70)[b]
	보수	3.02(0.78)[c]	2.55(0.71)[b]

전쟁 가능성에는 성별 차이는 없었지만 연령대별 차이는 관찰되었다. 전쟁 가능성을 가장 높이 평가한 집단은 60세 이상과 20대였으며 가장 낮게 평가한 집단은 50대였다. 중도와 보수가 진보에 비해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에 대한 정서, 북한에 인식과 안보 불안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7]에 제시하였다. 부정 정서, 즉 분노 정서, 두려움 정서가 강할수록 안보 불안감이 강했으며 한반도 전쟁 가능성도 높게 평가하였다. 상관의 강도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분노 정서와 두려움 정서가 전쟁 가능성보다 안보 불안감에 더 강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두려움: r 분노-안보불안감 = 0.42, r 두려움-안보불안감 = 0.47 vs. r 분노-전쟁가능성 = 0.28, r 두려움-전쟁가능성 = 0.30). 북한에 대한 부정 인식 역시 안보 불안감과 전쟁 가능성과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북한에 대한 긍정 정서와 긍정적 대북 인식은 안보 불안감과 전쟁 가능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북한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느낄수록,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한

반도의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며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흥미로운 부분은 연민의 정서였다. 연민 정서는 전쟁 가능성과 안보 불안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민 정서는 분노 정서, 두려움 정서, 긍정 정서, 긍정 인식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연민 정서가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결과는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북한에 대한 연민은 북한에 대한 지배적 정서라기보다는 부차적 정서일 가능성이다. 연민 정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표 3-7] 정서, 이미지, 안보 불안감의 상관성

	1	2	3	4	5	6	7	8
1. 분노	1							
2. 두려움	.71**	1						
3. 긍정 정서	-.38**	-.19**	1					
4. 연민	.20**	.37**	.38**	1				
5. 긍정 인식	-.39**	-.19**	.48**	.34**	1			
6. 부정 인식	.63**	.49**	-.32**	-.01**	-.42**	1		
7. 안보불안감	.42**	.47**	-.20**	.00**	-.37**	.44**	1	
8. 전쟁가능성	.28**	.30**	-.08**	-.03**	-.30**	.30**	.54**	1

북한에 대한 정서와 인식이 안보 불안감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서와 이미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상대적 영향력은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2단계로 북한에 대한 정서와 인식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는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8] 전반적 안보 불안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β)

		안보 불안감	전쟁 가능성
1단계	**성별**	.00***	-.01***
	연령	.07***	-.01***
	월평균소득	-.01***	-.05***
	이념	.20***	.16***
	학력	-.01***	.01***
2단계	**분노 정서**	-.02***	.03***
	두려움 정서	.40***	.25***
	긍정 정서	.06***	.16***
	연민 정서	-.10***	-.10***
	긍정 인식	-.21***	-.23***
	부정 인식	.17***	.11***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안보 불안감 및 전쟁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는 두려움 정서였다(β 두려움-안보불안감 = 0.40, β 두려움-전쟁가능성 = 0.25). 상관분석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던 분노 정서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안보 불안감과 전쟁 가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분노-안보불안감 = -.02, β 분노-전쟁가능성 = 0.03). 상관분석에서 안보 불안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연민 정서가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안보 불안감과 전쟁 가능성에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특징적이다. 북한에 연민을 느낄수록 안보 불안감이 낮았으며 전쟁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 역시 안보 불안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서의 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주제를 고려할 때 안보 불안감에 대해 두려움 정서가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과 안보 불안감, 전쟁에 대한 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3.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태도

북한 핵 능력에 대한 태도는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북한의 핵 능력에 의한 위협감을 5점 척도(1점: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5점: 매우 위협적이다)로 측정하였다(선생님께서는 북한의 군사력(핵 능력)이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4점 척도(1점: 전혀 가능성이 없다, 4점: 매우 가능성이 높다)로 측정하였다(선생님께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응답자는 다음 4개 보기 중 선호하는 응답을 선택하였다.

1. 현재 국방력이 충분하므로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 없다.
2.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3.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
4.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표 3-9]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북한 핵 능력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핵 위협	핵포기 가능성	핵보유
전체		3.59(1.06)	1.80(0.76)	3.08(1.05)
성별	남성	3.66(1.09)	1.76(0.77)	3.18(1.00)[b]
	여성	3.53(1.02)	1.84(0.76)	2.97(1.09)[a]
연령대	20대	3.41(0.98)	1.88(0.74)[b,c]	2.72(1.08)[a]
	30대	3.44(1.07)	1.87(0.74)[b,c]	2.97(1.02)[a,b]
	40대	3.51(0.95)	2.01(0.79)[c]	2.99(1.12)[a,b,c]
	50대	3.57(1.09)	1.79(0.78)[b]	3.25(1.04)[b,c]
	60세 이상	3.86(1.10)	1.58(0.71)[a]	3.28(0.95)[c]
이념	진보	3.35(1.09)[a]	1.96(0.75)[b]	2.90(1.16)[a]
	중도	3.57(1.04)[a]	1.82(0.75)[b]	3.07(1.07)[a,b]
	보수	3.86(1.05)[b]	1.58(0.80)[a]	3.24(0.86)[b]

핵무장에 대한 응답은 명목(nominal) 척도이지만 점증적으로 핵무장에 대한 선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리커트(Likert) 척도로 가정해 분석하였다.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우리 국민이 느끼는 위협감의 평균은 3.95였다. 중앙치인 3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다.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북한의 핵 능력에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54.7%,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7%,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3.7%에 불과했다. 북한 핵 능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느끼는 위협감이 상당 수준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위협감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위협감은 우리 국민 전반에 걸친 공통적 위협감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 국민은 부정적이었다. 4점 척도상에서 평균은 1.80, 응답 비율에서는 82%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60대가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40대가 가장 긍정적이었다. 이념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었다. 진보와 중도에 비해 보수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더 부정적이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국민은 핵 보유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은 3.08이었으며 독자적 핵 개발에 공감하는 비율이 48.2%,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에 공감한 비율은 22.2%였다. 핵무기 보유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9.6%였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핵 보유에 긍정적이었다. 핵무기 보유에 가장 긍정적인 연령대는 60대 이상, 가장 부정적 집단은 20대였다. 20대와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뒤에서 살펴볼 남북의 군사력 차이에 관한 문항에서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대와 30대는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북한에 대한 정서, 대북 인식과 북한 핵 능력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0]에 제시하였다. 북한에 대한 정서 및 대북 인식과 북한 핵 능력에 대한 태도 간 상관관계는 북한에 대한 정서 및 대북 인식 그리고 전반적 안보 불안감과의 상관관계와 유사했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대표되는 부정적 정서는 북핵에 대한 위협감 및 핵 보유와 정적 상관관계,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노 정서와 두려움 정서와 북한 핵 능력에 대한 태도 간 상관관계가 같은 방향을

[표 3-10] 정서, 인식, 북한 핵 능력에 대한 태도의 상관성

	1	2	3	4	5	6	7	8	9
1. 분노	1								
2. 두려움	.71**	1							
3. 긍정 정서	-.38**	-.19**	1						
4. 연민	.20**	.37**	.38**	1					
5. 긍정 인식	-.39**	-.19**	.48**	.34**	1				
6. 부정 인식	.63**	.49**	-.32**	-.01**	-.42**	1			
7. 핵위협	.37**	.43**	-.18**	.06**	-.26**	.41**	1		
8. 핵포기가능성	-.31**	-.20**	.37**	.14**	.39**	-.35**	-.27**	1	
9. 핵보유	.20**	.13**	-.18**	.02**	-.15**	.23**	.18**	-.23**	1

보이고 있지만 강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핵 위협과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두려움 정서가 강했고(r 두려움-핵위협 = 0.43, r 분노-핵위협 = 0.37), 핵 포기 가능성과 관련성은 분노 정서가 강했으며(r 두려움-핵포기 = -0.20, r 분노-핵포기 = -0.31), 핵 보유와 관련성은 분노 정서가 강했다(r 두려움-핵보유 = 0.13, r 분노-핵보유 = 0.20). 이는 서론에서 제시한 정서가 야기하는 평가(appraisal)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노 정서는 상대의 본성에 대한 정서이며 공격적 행동을 유도하는 정서이며 두려움 정서는 위협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의 결과들과 일관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긍정 정서는 북한에 대한 부정 정서와 역상관 관계에 있었다. 북한에 대한 긍정 정서는 핵 위협, 핵무장과는 정적 상관,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북한에 대한 연민 정서는 핵 위협과 핵무장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북한에 대해 연민을 느낄수록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 것이다. 연민 정서는 안보인식에서 관찰된 것과 같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다른 정서와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가지 가능한 가설은 연민 정서는 상대의 처지에 대한 공감과 도움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정서를 단순히 정적-부적의 일차원적 접근이 아닌 다차원

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 접근이 안보관련 인식에서도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긍정 인식은 북한에 대한 긍정 정서와 유사한 상관 패턴을, 북한에 대한 부정 인식은 두려움 및 분노 정서와 유사한 상관 패턴을 보였다.

북한 핵 능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각 정서와 대북 인식의 실질적 효과(genuine effect)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표 3-11]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태도 관련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β)

		핵 위협	핵포기 가능성	핵무기 보유
1단계	**성별**	*-.06***	.06***	-.10***
	연령	.14***	-.14***	.20***
	월평균소득	.01***	-.02***	.03***
	이념	.15***	-.16***	.07***
	학력	.02***	.01***	.08***
2단계	**분노 정서**	-.06***	-.05***	.05***
	두려움 정서	.35***	-.01***	-.02***
	긍정 정서	-.01***	.19***	-.08***
	연민 정서	-.03***	.02***	-.01***
	긍정 인식	-.10***	.19***	-.02***
	부정 인식	.21***	-.15***	.14***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두려움 정서였다(β = 0.35). 분노 정서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위협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두려움 정서의 뒤를 이어 부정이미지(β = 0.21), 긍정이미지(β = -0.10)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위협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보 상황에 대한 불안감, 전쟁 발생 가능성, 핵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상황 안정성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두려움 정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분노 정서와 두려움 정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북한에 대한 긍정 정서(β = 0.19)와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였다(β = 0.19).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에도 분노 정서와 두려움 정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핵무기 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β = 0.19)와 긍정 정서(β = -0.08)이었다. 핵무기 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두 개이며 상대적 영향력 또한 적다는 측면에서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인식은 다른 심리적 태도가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한국 안보정책에 대한 입장

한국 안보정책에 대한 입장은 남북 군사력 비교, 국방비 증액에 대한 견해, 국방비 운용방식에 대한 견해를 통해 측정하였다. 남북 군사력 비교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점: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보다 훨씬 강하다, -3점: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과 비슷하다, -5점: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보다 훨씬 약하다). 국방비 증액에 대해 응답자는 "2020년 한국의 국방비는 50조원으로 전 세계 138개국 중 9위에 해당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척도상에서 응답하였다(1점: 큰 폭으로 삭감해야 한다, -3점: 현재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5점: 큰 폭으로 증액해야 한다). 국방비 운용방식에 대해 응답자는 "위 질문과 관계없이 국방비 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방비 운용을 공격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점 척도(1점: 방어에 큰 폭으로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 -3점: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5점: 공격에 큰 폭으로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상에서 응답하였다. 안보정책에 대한 3개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12]에 제시하였다.

남북 군사력에 대해 우리 국민은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에 비해 다소 약하다고 보았다. 남북 군사력의 차이를 묻는 문항의 평균은 3.09로 중앙치인 3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북한이 우세하다는 응답 비율은 34.1%, 남한이 우세하다는 비율은 40.7%, 비슷하다는 응답은 25.1%였다. 남성은 한국의 군사력이 우세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북한의 군사력이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 30대, 40대는 한국의 군사력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50대는 남한과 북한의 군사

[표 3-12]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별 남북 군사력 비교의 평균(표준편차)

		군사력 비교	국방비 증액	국방비 운용
전체		3.09(1.21)	3.28(0.87)	3.07(1.10)
성별	남성	3.31(1.21)[b]	3.36(0.95)[b]	3.24(1.14)[b]
	여성	2.88(1.18)[a]	3.19(0.78)[a]	2.91(1.04)[a]
연령대	20대	3.43(1.08)[c]	3.20(0.81)[a,b]	3.06(0.97)
	30대	3.37(1.17)[c]	3.13(0.93)[a]	3.11(1.12)
	40대	3.15(1.14)[b,c]	3.24(0.85)[a,b]	2.97(1.02)
	50대	3.01(1.29)[a,b]	3.27(0.87)[a,b]	3.21(1.10)
	60세 이상	2.74(1.22)[a]	3.43(0.87)[b]	3.03(1.20)
이념	진보	3.39(1.21)[b]	3.04(0.91)[a]	3.01(1.10)[a]
	중도	3.08(1.19)[a]	3.25(0.81)[b]	3.01(1.04)[a]
	보수	2.87(1.24)[a]	3.55(0.95)[c]	3.33(1.25)[b]

력이 비슷하다고 판단하였다. 60대 이상의 경우 북한의 군사력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진보와 중도는 한국의 군사력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보수는 북한의 군사력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인식은 그 동안 한국의 재래군사력에 대한 질적 우위가 집중 강조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으며, 응답자들이 북핵 위협 자체를 군사력과 별도의 전략적 위협으로 고려하였을 수도 있다.

국방비 증액에 우리 국민은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점 기준 평균 3.28로 중앙치인 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하지만 응답 비율을 보면 현 국방비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과반을 넘었다. 증액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32.8, 삭감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11.3%였다. 우리 국민은 현재 국방비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국방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증액을 선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국방비 증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국방비 증액에 대한 선호가 우세한 가운데 60세 이상이 국방비 증액에 가장 호의적이었으며

30대가 상대적으로 국방비 증액에 대한 선호가 가장 약했다. 이념적으로 진보는 국방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보수와 중도는 국방비 증액을 선호하였다. 선호 강도는 보수가 중도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 운용에 대해서는 공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5점 기준 평균은 3.07이며 중앙치인 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응답 비율로 보면 방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비율은 27.4%, 현재 수준 유지를 해야 한다는 비율은 39.6%, 공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비율은 33.30%였다. 국방비 운용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성은 공격에 여성은 방어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진보와 중도는 현재 수준 유지, 보수는 공격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국방비를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정서, 북한에 이미지와 안보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3]에 제시하였다. 분노 정서와 두려움 정서는 남북 군사력 비교와 국방비 증액에 대해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북한에 대한 분노가 강할수록, 그리고 북한에 대해 두려움이 강할수록 북한이 남한에 비해 군사력이 강하다고 판단하

[표 3-13] 대북 정서, 대북 이미지, 안보정책에 대한 태도의 상관성

	1	2	3	4	5	6	7	8	9
1. 분노	1								
2. 두려움	.71**	1							
3. 긍정 정서	-.38**	-.19**	1						
4. 연민	.20**	.37**	.38**	1					
5. 긍정이미지	-.39**	-.19**	.48**	.34**	1				
6. 부정이미지	.63**	.49**	-.32**	-.01**	-.42**	1			
7. 군사력비교	-.10**	-.21**	.06**	.00**	.14**	-.12**	1		
8. 국방비증액	.19**	.16**	-.10**	-.02**	-.19**	.26**	-.05**	1	
9. 국방비운용	.14**	-.02**	-.11**	-.12**	-.21**	.23**	.02**	.23**	1

였으며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두 정서는 국방비 운용에 대해서는 차별적 효과를 보였다. 분노 정서가 강한 응답자는 공격에 초점을 둔 국방비 운용을 선호한 반면 두려움 정서는 국방비 운용방식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 정서는 남북 군사력 차이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느낄수록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방비 운용은 방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에 대한 연민 정서는 남북 군사력에 대한 판단 및 국방비 증액 여부와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북한에 연민을 느낄수록 국방비를 방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긍정 인식은 군사력 비교와 정적 상관, 국방비 증액과 국방비 운용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북한에 대한 부정 인식은 긍정 인식과 반대의 상관 패턴을 보였다.

안보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입장에 미치는 각 대북 정서와 인식의 실질적 효과(genuine effect)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4]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표 3-14] 대북 정서, 대북 인식, 안보정책에 대한 입장의 관계

		남북 군사력 비교	국방비 증액	국방비 운용
1단계	**성별**	-.18***	-.10***	-.15***
	연령	-.21***	.10***	.00***
	월평균소득	.05***	.02***	.07***
	이념	-.12***	.17***	.10***
	학력	-.09**	.01***	-.03***
2단계	**분노 정서**	.16***	-.02***	.12***
	두려움 정서	-.27***	.07***	-.19***
	긍정 정서	-.03***	.03***	.04***
	연민 정서	.06***	-.03***	-.04***
	긍정 인식	.11***	-.10**	-.11***
	부정 인식	-.03***	.16***	.19***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남북 군사력 비교 판단은 북한에 대한 정서, 특히 부정적 정서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분노 정서와 두려움 정서는 모두 남북 군사력 비교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해 북한에 분노를 느낄수록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강하다고 판단하며(r 분노-군사력 = -0.10),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 두려움을 느낄수록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강하다고 판단하는 결과가 나왔다(r 두려움-군사력 = -0.21). 하지만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분노 정서와 두려움 정서가 남북 군사력 비교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분노 정서가 강할수록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판단하였으며(β = 0.16) 두려움 정서가 강할수록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강하다고 판단하였다(β = -0.27).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인식은 전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에 긍정 인식을 가질수록 국방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믿는(β = -0.10) 반면 북한에 부정 인식을 가질수록 국방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믿었다(β = 0.16).

마지막으로 국방비 운용방식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강한 분노 정서는 공격(β = 0.12), 강한 두려움 정서는 방어(β = -0.19)에 초점을 둔 국방비 운용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 정서는 공격(fight) 경향, 두려움 정서는 도주(flight)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선호에서도 관찰되었다. 국방비 운용방식에 대해 대북 인식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방어에 초점을 둔 운용(β = -0.11),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격에 초점을 둔 운용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19).

흥미로운 점은 국방비 운용방식에 대해 두려움 정서와 긍정 대북 인식이 유사한 효과를 보인 것이다. 다시 말해 정서와 인식의 유인가(valence)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두려움 정서가 부정적 정서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부정적 정서인 두려움이 긍정적 인식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 것은 북한에 대한 태도, 또는 안보정책을 단순히 긍정-부정의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후속연구를 통해 정서와 인식이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안보정책에 대한 인지적 차원(이미지)과 정서적 차원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Ⅳ. 맺는말: 우리 국민의 대북 심리가 지니는 함축성

이번 대북 심리 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의 대북 정서, 대북 인식, 대북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한국인 중 다수는 평소 북한에 부정 정서를 느낀다고 답했고, '불안한'(74.7%), '화가 나는'(73.9%), '걱정스러운'(73%), '수상한'(72%), '긴장하는'(71.1%), '분노하는'(69.7%)의 순으로 부정적인 정서가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분노와 공포의 정서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대북 인식 역시 마찬가지였다. 북한이 경계대상이라는 데 동의한 정도가 7.01점으로 가장 높았고,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이 6.2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북 정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선 부정 시각이 짙었던 반면, 협력이나 지원대상이라는 데 동의한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이미지도 부정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독재국가'(43.9%), '적대국가'(21.8%)가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는 이미지였다. 일견 이는 향후 남북한이 서로 적대감과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국민의 대북 심리가 보여주는 결과는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특정 행정부의 의지나 남북대화 등 몇 가지 사건만으로는 국민이 지니는 부정적 대북 정서나 심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북한의 적극적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한국 우위로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이 심리적 저변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지니고 있는 이중적 안보 인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을 포함한 안보상황에 대해선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68%로 다수였다(불안하지 않다 32%). 그러나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었다(가능성 낮음 53.3%, 가능성 높음 46.7%). 평소 안보상황에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지만 전쟁 가능성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 것이다. 이는 그간 안보 불안이 오랫동안 지속됐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응답자의 82%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서도, 절반 이상(55.8%)은 북핵 위협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했다(영향이 높다 44.2%). 이 역시 오랫동안 지속된 북한 위협에 대한 일종의 익숙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조사대상자의 54.7%가 북한의 군사능력에 우리에게 위협적이라고 답했

으며(아니라는 응답은 13.7%에 불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으로 독자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 한국인은 48.2%로 절반에 가까웠다. 다음으로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가 22.2%, '핵무기는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재래식 무기 기반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가 18.5%로 비슷했다. '현재 국방력으로 충분하므로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11.1%에 불과했다. 한국인은 대체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현재의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즉,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자신의 능력 강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분석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대하여 우리가 북한에 방역물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북 지원을 반대하는 비율이 61%(대체로 반대 33.7%, 매우 반대 27.3%)에 이른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간 교류협력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우리 내부의 안정이 우선이라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주로 남북 대화나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행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국민의 대북 정서나 심리와는 무관하게, 대북 유화책 위주의 정책이 등장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나 공포 정서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일탈행위에 대한 수세적 대응이나 반응이 이러한 분노 정서를 키웠을 수 있다는 자성이 필요하다.

부록: 대북 인식 조사 문항별 응답 결과표[14]

Q1. 북한을 생각할 때 귀하께서 아래에 제시한 정서를 어느 정도 경험하는지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1점)', '완전히 경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경험하지 않음	경험하지 않음	별로 경험하지 않음	경험함	다소 경험함	전적으로 경험함
두려운	5.0	10.7	25.9	32.8	17.4	8.1
무서운	5.3	10.7	26.0	31.5	16.4	10.1
긴장하는	2.9	6.3	19.7	35.9	24.6	10.6
분노하는	2.7	7.1	20.5	31.8	22.2	15.7
화가나는	2.5	7.1	16.6	32.7	22.7	18.5
증오스러운	5.7	11.8	28.3	27.2	15.1	12.0
불안한	3.1	5.2	17.0	34.4	26.1	14.2
수상한	3.0	6.9	18.2	34.4	22.4	15.3
걱정스러운	4.2	6.5	16.3	35.3	25.8	11.9
절망스러운	4.7	10.6	24.1	33.0	17.9	9.7
성가신	3.7	8.3	23.7	31.2	21.8	11.3
지겨운	4.1	7.9	21.9	29.6	22.8	13.8
즐거운	35.0	27.1	21.5	9.9	4.3	2.2
정겨운	26.8	23.2	29.3	14.0	5.2	1.5
행복한	36.6	24.7	23.1	9.6	4.3	1.7
마음이 약해지는	15.7	18.7	32.9	23.0	7.9	2.0
공감하는	21.4	21.6	29.1	18.4	7.9	1.6
연민	11.0	14.6	26.5	31.0	13.6	3.4
슬픈	6.4	12.0	26.9	33.1	15.2	6.5
따뜻함	31.3	24.9	25.7	10.6	5.7	1.8

14. 표에 제시한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비율로 합이 100%가 아닐 수 있다.

Q2. 선생님께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점)', '매우 동의한다(10점)' 사이에서 자유롭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0~4점: 동의하지 않음, 5점: 중립, 6~10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중립	동의함
지원대상	47.9	18.5	33.7
협력대상	39.2	19.9	40.9
경계대상	12.4	12.1	75.5
적대대상	21.5	18.5	60.1

Q3. 선생님께서는 '북한'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아래 항목 중에서 가장 크게 떠오르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재 국가	43.9
적대 국가	21.8
국가가 아닌 동포 또는 민족	12.7
동반 가능 국가	8.1
야만적 국가	7.3
열등한 국가	6.1

Q4.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핵 위협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으로 인해 평소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다	4.7
별로 불안하지 않다	27.3
대체로 불안하다	51.9
매우 불안하다	16.1

Q5. 선생님께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	9.9
별로 가능성이 없다	43.4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42.1
매우 가능성이 높다	4.6

Q6. 선생님께서는 평소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	6.9
별로 관심이 없다	33.9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49.0
매우 관심이 있다	10.2

Q7.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군사력(핵 능력)이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4.1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9.6
보통이다	31.7
대체로 위협적이다	32.5
매우 위협적이다	22.2

Q8.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7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7.1
대체로 영향을 미친다	35.4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8.8

Q9. 선생님께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	39.6
별로 가능성이 없다	42.4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16.3
매우 가능성이 높다	1.6

Q10. 만약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선생님께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	30.8
별로 가능성이 없다	50.3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15.7
매우 가능성이 높다	3.1

Q11.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48.2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	22.2
핵무기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재래식 무기 기반으로 국방력 강화	18.5
현재 국방력이 충분하므로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 없다	11.1

Q12. 선생님께서는 남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다음 진술문 중 어느 것에 동의하십니까?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훨씬 강하다	10.9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다소 강하다	23.2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과 비슷하다	25.1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다소 약하다	27.3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훨씬 약하다	13.4

Q13. 2020년 한국의 국방비는 50조원으로 전세계 138개국 중 9위에 해당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폭으로 삭감해야 한다	3.5
소폭으로 삭감해야 한다	7.8
현재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55.9
소폭으로 증액해야 한다	23.1
큰 폭으로 증액해야 한다	9.7

Q14. 위 질문과 관계없이 국방비 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방비 운용을 공격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어에 큰 폭으로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	9.3
방어에 소폭으로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	18.1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39.6
공격에 소폭으로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	22.0
공격에 큰 폭으로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	11.0

Q15. 선생님께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방역 물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7.1
대체로 찬성한다	31.9
대체로 반대한다	33.7
매우 반대한다	27.3

Q16.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에 대한 다음의 진술문 중 어느 것에 가장 동의하십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	49.3
중국보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23.8
미국 중국과 관계없이 자주 외교를 펼쳐야 한다	21.0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5.9

ASAN
REPORT

한국인의 대북 심리

인식, 정서, 이미지, 그리고 그 근원

발행일 2021년 5월
지은이 박주화, 제임스 김, 차두현, 강충구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ISBN 979-11-5570-226-0 93340 비매품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아산정책연구원

93340
9 791155 702260 비매품
ISBN 979-11-5570-226-0